

# 온라인 검색도구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기록관 검색도구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Online Finding Aids: Based on the Assessment of National Archives

이 윤 령 (Yoon-Ryeong Lee)\*\*

이 해 영 (Hae-Young Rieh)\*\*\*

### 목 차

- |                                    |                        |
|------------------------------------|------------------------|
| 1. 서 론                             | 4.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
| 2. 연구 설계                           | 5. 온라인 검색도구 개선 및 발전 방향 |
| 3. 국가기록원 및 해외 국립기록관 온라인<br>검색도구 현황 | 6. 결론 및 제언             |

### <초 록>

국가기록원 등 많은 기록관에서 온라인 검색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호주, 영국, 미국의 국립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도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 호주, 영국, 미국 국립기록관의 검색도구를 직접 사용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기 위해, 실제 이용자들을 선정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반적 기능 및 계층별 검색, 검색옵션 및 주제어검색, 검색결과제시,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온라인 검색도구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온라인 검색도구, 국가기록원, 해외 국립기록관, 포커스그룹 인터뷰

### <ABSTRACT>

Many archives, including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use online finding aids. However, in many aspects, they need improvement. In this study, with focus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online finding aid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 The National Archives (TNA) of United Kingdom, and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of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Focus group interview was administered to users of the archives, identifying the pros and cons of online finding aids of NAA, TNA, and NARA. Based on the results, variou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directions are suggested, including aspects on overall functions and hierarchical search, search options and subject search, representing search results, and archival contents services.

Keywords: Online Finding Aids,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A, TNA, NARA, Focus Group Interview

\* 본 논문은 2013년 대통령기록관 연구용역사업인 <대통령기록물 주제 분류체계 고도화 사업>의 내용 일부와 이윤령의 석사학위 논문 『온라인 검색도구에 관한 연구-국립기록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youngfish@naver.com)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hyrieh@mj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4년 1월 30일 ■ 최초심사일: 2014년 2월 4일 ■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14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75-100,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1.075>>

##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된 후 2004년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우리나라의 기록관리는 오랜 기간 보존이 중심이 되어왔다. 기록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가장 기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록 관리의 목적을 깊이 생각해보면 언젠가 누군가가 필요할 경우 기록을 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을 잘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록의 보존이 아니라 이용이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건 오랜 시간이 지난 미래건 이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기록을 찾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검색도구(finding aids)이다. 이용자는 검색도구를 통해서 기록을 찾고, 좀 더 쉽게 기록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다.

설문원(2010)은 기록은 본질적으로 활동의 결과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기록의 이해를 도우려면 검색도구는 기록 고유의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록 검색도구가 원 자료에 대한 단순한 대체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록 검색도구에는 기록을 직접 보지 않아도 기록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함은 물론, 기록 특유의 계층 구조와 기록이 생산된 맥락에 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그 기록을 “누가, 어떤 일과 관련하여,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검색도구는 처음에는 종이를 기반으

로 하였고, 계층적 기술을 하였으나 다면적인 확인이 어려웠을 뿐 더러, 검색의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 검색도구와 관련하여 큰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된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의 등장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고 이들이 결합하여 기록관에서 온라인 검색도구를 제공하게 되면서 기존의 종이기반 검색도구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즉, 계층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 기반 검색 등 다양한 기능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기록의 열람, 복사, 대출 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용자들이 기록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했는데,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일부는 원문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일반 이용자에게도 기록관의 장벽은 낮아지고 친근해졌다.

많은 기록관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지닌 온라인 환경과 기존의 검색도구를 결합한 온라인 검색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기록관과의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기록관을 이용하고 있다. 국가기록원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검색체계를 구상하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용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관에서 온라인 검색도구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장 적절한 기능을 확인하여 올바른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원의 검색도

구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분석한 후, 기록관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 영국, 미국의 국립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 도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다. 그리고 실제 이용자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호주, 영국, 미국 국립기록관의 검색도구를 직접 사용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검색도구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우선 온라인 검색도구의 개념, 정의, 발전과정 등에 관한 연구가 있고 온라인 검색도구의 개선 방향 및 발전 방안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

먼저 국내의 검색도구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는 신동희(2003), 설문원(2010) 연구가 있으며, 해외에는 대표적으로 Light & Hyry(2002)와 Cox(2008)의 연구가 있다. 신동희(2003)는 검색도구의 전반적인 개념과 발전과정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설문원(2010)은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에 관한 연구에서 검색도구의 발전과정을 복잡화, 통합화, 개방화로 나누어 제시하고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Light & Hyry(2002)는 검색도구가 아키비스트와 이용자의 주관적인 견해나 의견을 입력하도록 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Cox(2008)는 검색도구의 개념과 최근 30년간의 검색도구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박물관의 전시 관련자, 디자인 전문가 및 설명책임성의 옹호자 등 외부인들의 관점에서 검색도구를 검토하고, 아키비스트들이 이러한 다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기록의 기술과 기술 표준 및 검색도구의 구조와 역할 등에 대해 재평가하고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검색도구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여러 번 이루어진 바가 있다. Duff & Stoyanova(1998)는 포커스그룹 토론을 통해 온라인 검색도구를 평가하였다. 이들은 대상자들이 웹디자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록물도 제시되기를 바라며, 온라인 검색도구 디자인이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이기 보다, 웹디자인의 특성을 반영해야함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Altman & Nemmers(2001)는 종이 기반 검색도구보다 온라인 검색도구가 훨씬 더 효율적이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akel(2004)은 6명의 이용자들이 직접 EAD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고, 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용자들이 기록관련 용어나 검색도구의 기능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현장 이용자 뿐 아니라 원격 접속자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Prom(2004)은 이용자와 온라인 검색도구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측정하였다. 네 가지의 콜렉션 레벨 검색 시스템과 네 가지의 검색 도구를 이용한 참가자들의 반응을 측정했는데, 아카이브 이용 경험자와 무경험자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였다. 알파벳 순의 리스트, 페이지 내의 검색 옵션의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효율적임을

밝히며, 아키비스트들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Coats(2004)는 EAD 검색 도구 이용자들의 정보 탐색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EAD와 관련하여 진행된 기존의 이용자 연구들을 살펴보고 EAD가 검색도구들을 여러 면에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Zhou(2007)는 미국 의회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EAD 웹사이트들의 검색엔진 유형, 검색모드, 검색옵션, 검색결과표시, 검색 피드백, 그리고 기타 검색 시스템의 특징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아키비스트들이 검색도구의 코딩 자체보다 이용자에게 잘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Yakel, Shaw & Reynolds(2007)와 Krause & Yakel(2007)은 Web 2.0 기능을 도입한 차세대 검색도구를 개발하고 이 검색도구의 특징과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Krause & Yakel(2007)은 이 검색도구를 이용해본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그 검색도구의 기능의 사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Chapman(2010)은 온라인 검색도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온라인 검색도구의 숙련도에 따라 전문가와 초보자로 나누고 검색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온라인 검색도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였으며 온라인 검색도구의 어떤 측면들이 이용자의 이용을 돕는지 등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숙련도와 온라인 검색도구의 숙련도와 연관성이 일부 있음을 밝히고, 검색도구에 라벨이나 온라인상으로 지시하는 기능을 보강하여 초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Jackson(2012)의 연구는 검색도구와 결합된 디지털 콘텐츠의 유용성

에 관한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이용자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Walters(2011)는 1998년에서 2008년 사이에 발표된 온라인 검색도구의 유용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검색도구와 관련된 연구들이 무엇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지, 이용자들이 온라인 검색도구와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등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Nimer & Daines III(2008, 2011)는 검색도구의 재설계 및 제공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2008년 연구에서 아키비스트가 온라인 검색도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용자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를 검색도구 제공에 활용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Web 2.0과 이용자 연구를 통해 검색도구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2011년의 연구는 온라인 검색도구의 검색결과 제시와 관련하여 이 역시 이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색결과로 제시되는 전문용어, 기록의 계층 구조 등 이용자들이 낯설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검색도구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로는 권창호(2007), 유시내(2007), 하은미, 이수상(2007)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권창호(2007)는 웹상의 기록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질의와 정보자원과의 매칭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보 자원간의 상호 연관성을 도출, 연결 및 조직하여 대용량의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

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토픽맵을 제시하였다. 유시내(2007)는 검색서비스에 있어서 폭소노미의 유용성에 주목하고 국·내외 폭소노미 기반 시스템의 검색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기록 검색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폭소노미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은미, 이수상(2007)은 검색도구의 진산화 표준인 EAD를 구축한 국내의 기록관에 대해 살펴보고, EAD를 활용하는 검색도구의 특징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학기록관의 검색도구 서비스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검색도구들을 비교·분석하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색도구들을 평가하는 연구 등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사례 분석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검색도구 서비스의 개선 방안 및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상에 온라인 검색도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상세히 살펴보고 현황을 분석한다. 기록정보 콘텐츠를 검색도구에 편입한 것은 기록정보콘텐츠가 사회적 관심이나 열람 요청이 많은 기록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특성, 주제, 시대 등에 따라 묶어서 정리한 것으로 (<http://www.archives.go.kr/next/theme/contentsOutline.do>), 미리 이용자들이 찾아보

고자 할 만한 주제에 대해 기록을 제시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검색도구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선진사례로 파악되는 영국과 미국, 호주의 국립기록관에 대해서는 이들 웹사이트에서 2013년 11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검색도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가기록원 검색도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 온라인 검색도구는 키워드 검색, 기술계층별검색, 주제별검색, 기록정보콘텐츠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검색도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 '기록학 전공 대학원생', '역사학 전공자' 등 세 이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란 '표적집단면접법'이라고도 하며, 전문지식을 보유한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목적은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어 이를 표면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화란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하여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참여자들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경직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참여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진행시간은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가 적당하다. 너무 짧으면 참여자들의 생각,

태도 등을 파악하기 힘들고, 너무 길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가장 큰 장점은 집단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면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승효과는 타인의 의견발표에 자극받아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 표적 집단의 동질성으로 인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타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의견표명을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응답을 강요당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행자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 조사결과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편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채서일, 2008).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그 장점들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검색도구의 기능 및 구조 등을 파악하여 국가기록원에 온라인 검색도구 서비스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방법은 연구 계획단계,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 포커스 그룹 진행단계, 분석단계, 보고서 작성단계로 이루어지며(Morgan, 1998),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검색도구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

저 질문을 개발하고, 적절한 대상 그룹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기록에 대해 알고 있고, 기록 이용기회가 있을 법 하면서, 기록 검색도구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만한 이용자들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단일그룹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의견만을 수집할 위험이 있어 유의미한 자료 수집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참여자 그룹을 국가기록원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 '기록학 전공자', '역사학 전공자'로 나누었다. 국가기록원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는 일반 이용자들이면서 기록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정하였다. 기록학 전공자의 경우 온라인 검색도구 사용에 능숙하고 전공자로서 다양한 견해를 낼 수 있으며, 서로 친분이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 선정하였다. 역사학 전공자는 기록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의 시각으로 검색도구를 활용하고 견해를 낼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 2.2 질문의 개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였으며, 질문과 검색을 위해 배포된 가이드북의 초안은 공동 연구자들이 만들고, 프로젝트 참여 인력 8인과 기록연구사, 학예연구관이 검토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이혜영 외, 2013). 구체적인 질문은 <표 1>과 같다.

〈표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 내용

범주	질문 내용
도입 질문	본 연구는 효율적인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해의 국립기록관의 온라인 검색도구에서 기록 검색을 시행해 보고 그룹 면담을 통해 장단점 등을 평가하여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나뉘드린 가이드북의 내용을 살펴보고 의문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NAA 검색도구 사용	가이드북에 제시된 예시 중심으로 NAA의 검색도구를 사용해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좋은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편하다고 느꼈던 기능이 있었는지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들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사용했던 기능 이외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TNA 검색도구 사용	가이드북에 제시된 예시 중심으로 TNA의 검색도구를 사용해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좋은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편하다고 기능이 있었는지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들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사용했던 기능 이외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NARA 검색도구 사용	가이드북에 제시된 예시 중심으로 NARA의 검색도구를 사용해 보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좋은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편하다고 느꼈던 기능이 있었는지요?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들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사용했던 기능 이외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마무리 질문	종합적으로 각 검색도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기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토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요약 후에) 이 외에 혹시 의견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2.3 자료 수집 과정 및 절차

국가기록원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는 국가 기록원의 협조)를 통한 모집에 응한 8명이 참가 하였다(이해영 외, 2013). ‘기록학 전공자’의 경우,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집 내용을 보고 신청한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역사학 전공자’는 주변에서 역사학 전공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5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3년 10월 5일 토요일에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 본관 컴퓨터실에서 진행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인터뷰 진행 전 본인의 전공 배경, 연령대, 기록관 이용 경험, 기록관 이용 목적 등에 대해 묻는 한 페이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다. 세 그룹 참여자 전체 21명의 학부전공을 분석해보면, 역사전공 대학생 혹은 졸업생이 10명으로 전체 참여자 중 절반 가까이(4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문헌정보 전공 대학생 혹은 졸업생이 5명으로 전체 참여자 중 23%를 차지했다. 그 밖에 미술전공, 정치외교, 중어중문, 경영학, 유아교육, 전산학 등이 각각 한명 씩 참여하였다.

〈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전공

전공 배경	응답자 수 (명, %)
역사전공 대학생(4명) 및 졸업생(1명)	5 (23.8)
기록학전공 대학원생	8 (38.1)
문헌정보 전공 대학생(2명), 졸업생(1명)	3 (14.3)
기타 전공 대학생(정치외교, 중어중문, 경영학, 유아교육 각 1명) 및 졸업생(전산학 전공 1명)	5 (23.8)
합계	21 (100)

1) 본 연구의 바탕이 된 <대통령기록물 주제 분류체계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전체 인터뷰 대상자들의 연령대는 20-25세가 11명, 26-30세가 8명, 31-35세가 2명이었다. 국가기록원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기록원을 3회 이상 방문해 이용하여 본 응답자가 3명, 온라인 사이트 3회 이상 이용해 본 응답자가 13명이었다. 이용 목적은 과제나 논문 등 학술연구가 13명이었고, 개인적인 흥미가 8명이었으며, 기타 직장이나 조직의 업무를 위해서가 2명(복수 선택 가능)이었다.

〈표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국가기록원 이용경험

방문 횟수	응답자 수 (복수응답, 명, %)
방문 이용 3회 이상	3 (14.3)
방문 이용 2회 이하	8 (38.1)
온라인 사이트 이용 3회 이상	14 (66.7)
온라인 사이트 이용 2회 이하	3 (14.3)
합계	28 (123.4)

〈표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국가기록원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응답자 수 (복수응답, 명, %)
과제나 논문 등 학술 연구 목적	13 (61.9)
개인적인 흥미	8 (38.1)
직장이나 조직의 업무를 위해서	2 (9.5)
기타(서포터즈 활동)	1 (4.8)
합계	24 (114.3)

각 인터뷰는 그룹 당 1시간 30분씩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각 세션마다 미리 6쪽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북을 배부한 후, 연구 대상 사이트의 온라인 검색도구 특성에 대해 간

단히 설명하고, 예로 사용할 키워드를 제시하여 호주 NAA, 영국 TNA와 미국 NARA 사이트에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였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에 대해서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준비하였으나, 당일에 나라기록포털 사이트가 개편 관계로 중단되어 진행하지 못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모든 과정은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진행자와 공동연구자가 진행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노트를 작성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전에 배부한 가이드북에 자유롭게 의견을 적도록 하고, 이를 나중에 회수하였다. 이를 통해 녹음자료, 현장에서 기록한 노트, 참여자들이 별도로 가이드북에 작성한 노트 등을 수집 자료로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모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생산하고 획득하였으며 생산과정에서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 2.4 자료 분석

온라인 검색도구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획득된 녹음자료, 현장에서 기록한 노트, 참여자들이 별도로 작성한 가이드북에 적은 노트들의 내용을 하나로 종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녹음자료의 경우 글로 풀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현장에서 기록한 노트의 경우 각 그룹별로 현장 분위기, 참여자들의 반응 등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노트한 내용도 별도로 정리하였다. 이후 이 세 가지 자료를 그룹



위어, 하위어, 관련어)를 선택하여 기록물을 검색하는 것으로, 시소러스를 이용한 검색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록물 검색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생산기관별검색은 명칭 그대로 생산기관에 따라 검색을 하는 것이다. 국가행정조직, 자치행정조직 등 15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안에 세부적인 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기관을 상위 구조에서부터 하위 구조로 찾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원하는 생산기관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생산기관별검색을 통해 기록 생산기관의 계층관계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3.1.2 기술계층별검색

기술계층별검색이란 기록물의 생산맥락에 근거해서 기록물의 집합을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계층을 나누어 디렉토리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록물의 구조와 내용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검색 방법이다. 기술계층별검색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을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 의거 정리, 기술한 결과를 제공한다. 즉, 기록물을 조직과 기능에 근거한 군(group 그룹)/계열(series 시리즈)로 분류하고 해당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의 내역을 기술규칙에 의거 기술하여 제공한다(<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DescClassMain.do>).

기술계층별검색을 통한 결과를 제시할 때는 생산기관의 연혁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변화하는 기관명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2013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변경된 여러 기관의 명칭들이 2014년 1월 현재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록물

군, 계열, 첩과 같이 기록과 관련된 전문용어 등이 사용되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3.1.3 주제별검색

주제별검색은 정책, 사건, 사고 등을 28개 국정분야, 5,700여개의 주제로 구조화하고, 주제별로 주요 내용과 관련 소장기록물 및 목록 등을 소개한 것(<http://www.archives.go.kr/next/search/formSubjectSearch.do>)으로 주제별 상세검색, 국정분야별 검색, 주제유형별 검색으로 나누어 제공된다. 주제별 상세검색은 키워드 검색과 국정분야별 검색, 주제유형별 검색을 합쳐놓은 형태로 각각을 옵션으로 부여하여 원하는 주제에 따라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분야별 검색의 경우 국정분야를 공공질서, 과학기술, 교육, 국가보훈, 국무조정/감사/홍보, 국방/병무, 국토 및 지역개발, 노동,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법무/법제, 보건, 보육/가족/여성,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에너지 및 자원개발, 외교, 인사/조직/전자정부, 재난방재민방위, 재정/금융, 정보통신, 조달 및 물자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통계, 통상, 통일, 환경 등 2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3~4단계로 상세 분류하여 기록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주제유형별 검색은 기록을 주제에 따라 크게 정책/제도, 사업, 역사적사건, 인물, 조직/기구, 사건/사고, 조약/회담, 회의, 행사/이벤트, 기타로 나누어 제공한다. 주제별 검색은 이와 같이 이용방식이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정분야와 주제유형에 따라 나뉘는 분류에서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분류체계를 만들 때 기록에 의거하여 만들었다기보다는 주제의 계층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정분야별 검색의 경우 너무 세분화한 나머지 원하는 주제를 찾는 것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

### 3.1.4 기록정보콘텐츠

기록정보콘텐츠는 메인 메뉴로 따로 제시되며, 콘텐츠 유형별, 이용자그룹별, 대통령전시관, 전시콘텐츠로 크게 나누어 제시된다(http://www.archives.go.kr/next/theme/themeView01.do). 그 중 콘텐츠 유형별 목록에서는 주제 콘텐츠, 시대·생활 콘텐츠, 교육콘텐츠, 전문 콘텐츠를 제시하고, 이용자 그룹별 목록에서는 이용자를 일반이용자와 학생·교수 및 연구자로 나누어 제시한다. 대통령전시관은 활동, 교육, 기록, 전시로 나누어 제시되며, 전시 콘텐츠는 2014년 1월 현재 건국60년 특별전,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 국가지정기록물, 국제기록문화전시회 등이 제공되고 있다. 기록정보콘텐츠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 그룹별 목록이 도입되었으나 특정 이용자층을 겨냥하여 구성하고 있다기보

다는 주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3.2 해외 국립기록관

해외 국립기록관들의 검색도구에 대한 사례는 기록검색도구의 기본 기능으로 볼 수 있는 키워드검색, 기술계층별검색, 주제별검색 및 기록정보콘텐츠 등으로 나누어 2013년 11월 현재의 기능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호주의 경우 NAA(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홈페이지 메뉴 중 'The Collection'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도구를 분석하였고, 영국은 TNA(The National Archives) 홈페이지의 'Records' 메뉴에 있는 통합검색, 주제별 검색, 온라인 콘텐츠 등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은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홈페이지의 'Online Research Tools and Aids' 메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검색도구들을 분석기준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각 국 온라인 검색도구 현황

분석기준	NAA	TNA	NARA
키워드검색	<Recordsearch>	<Discovery>	<OPA>
기술계층별검색	<Recordsearch>의 고급검색	<Browse>	Research by <Government Organizations>
주제별검색	<Fact sheet> <A-Z for researchers> <Popular research topics>	<Research Guide> <Person, People, Subject Guide>	Search by <Topic>
기록정보콘텐츠	<Family history>, <Education> <Snapshots of the collection> <Stream of Digital Archives>	<World through a lens> <Education> <Online Collections>	<Veterans' Service Records> <Teachers'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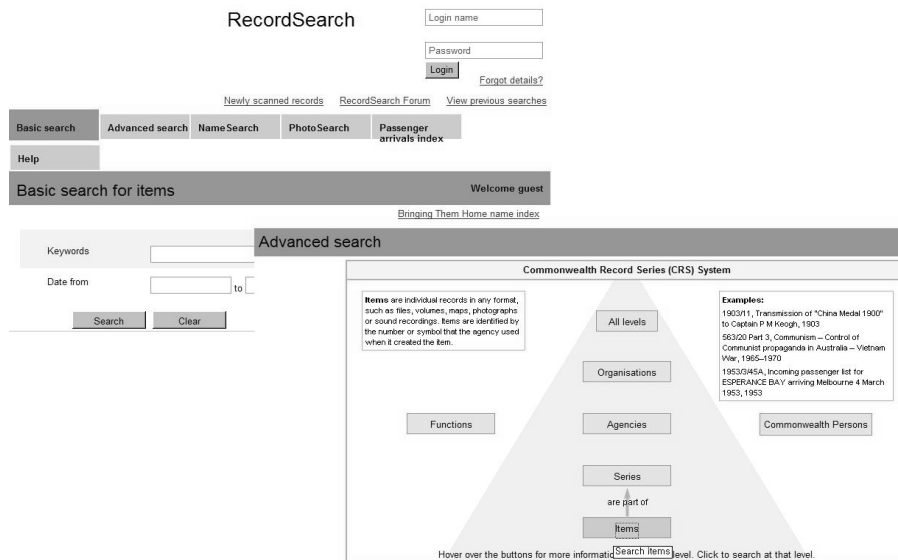
### 3.2.1 NAA

NAA는 키워드검색을 위해 'Recordsearch'를 제공한다. 기본검색, 고급검색, 이름검색, 사진검색 등 다양한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검색은 단순한 키워드 입력 방식, 고급검색은 다양한 옵션을 두어 검색결과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고급검색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기록의 계층에 따른 단순한 옵션을 직관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점으로,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Exclude' 기능을 각 옵션마다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옵션 중에 배제하고 싶은 항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원치 않는 옵션의 적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름검색의 경우 군 인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이주와 귀화 기록 등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기록을 카테고리별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찾고자하는 성씨

(Family name)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검색은 NAA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기록만을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키워드나 알파벳 색인을 이용하여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태그검색, 지도검색 등을 추가한 '새로운 사진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AA에서 기술계층별검색은 기록의 기술계층에 따라 검색옵션을 별도로 두고 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AA에서는 복잡한 기술계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록 간 계층 및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계층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설명도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볼 수 있다. <그림 2>는 기술 계층 중 item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간 경우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NAA의 주제별검색 기능으로는 Fact sheet,



<그림 2> NAA RecordSearch 기본 화면 및 고급검색 옵션

'A-Z for researchers', 'Popular research topics'가 있다. Fact sheet는 289가지의 주제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순서대로 나열한 목록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고, 주제어를 입력할 수도 있다. A-Z for researchers는 인기 있는 연구주제, 서비스 그리고 기록관의 컬렉션과 관계있는 사건들을 다양한 주제로 종합한 색인이다. 알파벳 색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알파벳 순으로 주제어를 제공하고 있다. Popular research topics는 이용자들이 많이 찾은 인기 있는 주제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주제별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NAA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는 'Family history', 'Snapshots of the collection', 'Stream of Digital Archives', 'Education' 등이 있다. Family history는 가문의 역사에 대해서 찾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여기서는 과거에 군대에 몸 담았었거나 20세기에 호주로 이주 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napshots of the collection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일부 주제에서는 세계적 온라인 사진 공유 서비스인 Flickr(플리커)<sup>2)</sup>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Stream of Digital Archives는 기록관에서 새롭게 디지털화한 기록들을 업데이트하여 이용자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디지털 기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Education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서 소

장하고 있는 기록을 활용하여 선생님과 학생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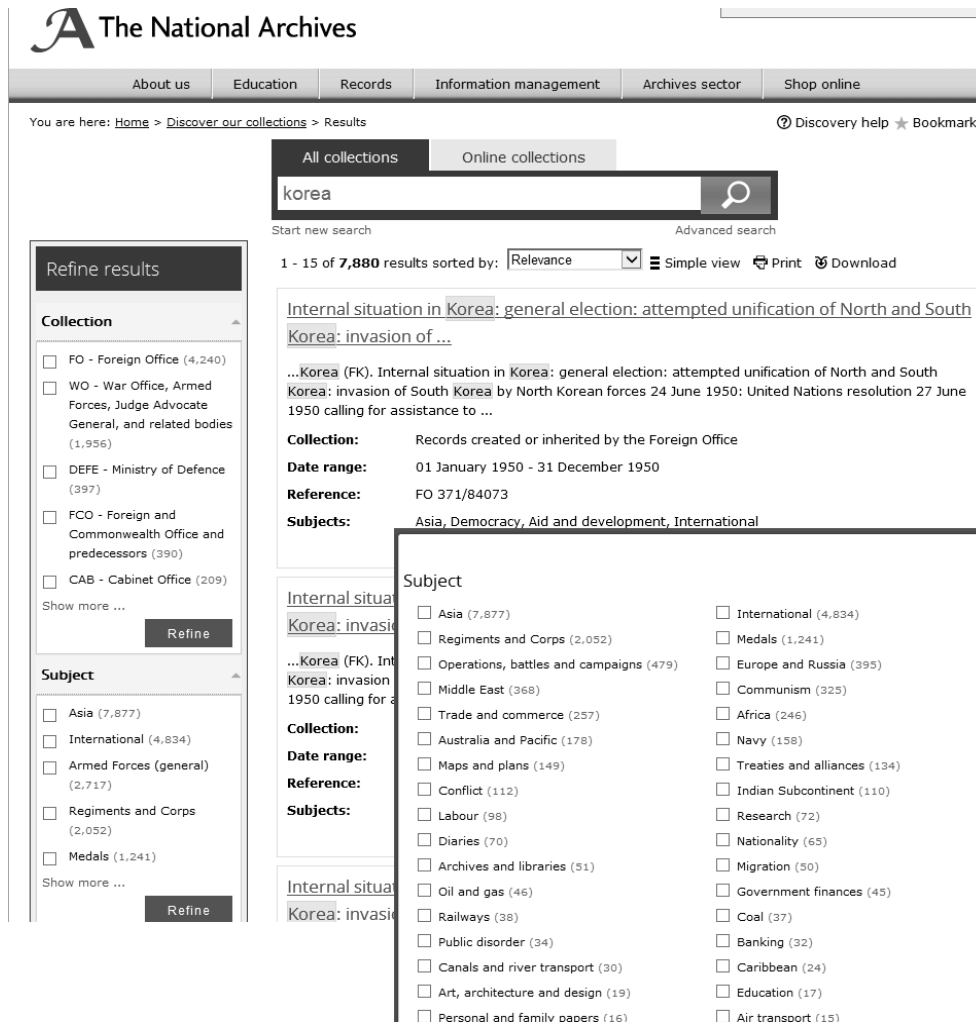
### 3.2.2 TNA

TNA는 키워드검색으로 소장물에 대한 통합적인 검색이 가능한 'Discovery' 서비스를 제공한다. Discovery를 이용해서는 기록에 대한 통합적인 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기록의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이용자들이 입력한 Tag도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iscovery는 기본검색과 고급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징적인 부분은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 화면에 컬렉션 별, 주제 별, 기간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Refine'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검색결과에서 필요한 옵션들을 선택하여 원하는 결과로 좁혀가는 방식으로, 단순히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결과를 재검색하는 '결과 내 재검색'과는 차이가 있다.

기술계층별검색은 기록들을 정부부처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재조직한 색인형태로 제공한다. 정부부처의 풀네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형태로 된 참조기호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Browse'라는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Browse를 통해 기록을 기술계층별로 살펴볼 수도 있고 참조부호 순서대로 살펴볼 수도 있다.

주제별검색의 경우 주제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색인형태로 제공하는 'Research Guides A-Z'가 있고,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2) 미국의 온라인 사진 공유 커뮤니티 사이트로 웹 2.0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림 3> TNA에서 Korea로 검색한 결과와 Subject의 'Show more...' 클릭 결과

있는 인물, 장소, 기타주제 등의 주제유형에 따라 기록을 분류한 Looking for a place? Looking for a person? 및 Looking for a subject?가 있다. 특히 Looking for a subject?는 주제 분야를 크게 분류하고, 각각에서 세분화된 주제어를 제시하는데, 주제분야에는 1800년 이후 정치와 관련된 역사, 1800년 이전의 정치와 관련된 역사, 식민지 역사, 외교 문제(국제관계), 의회, 보건

과 복지, 세계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육군, 해군, 공군 등등의 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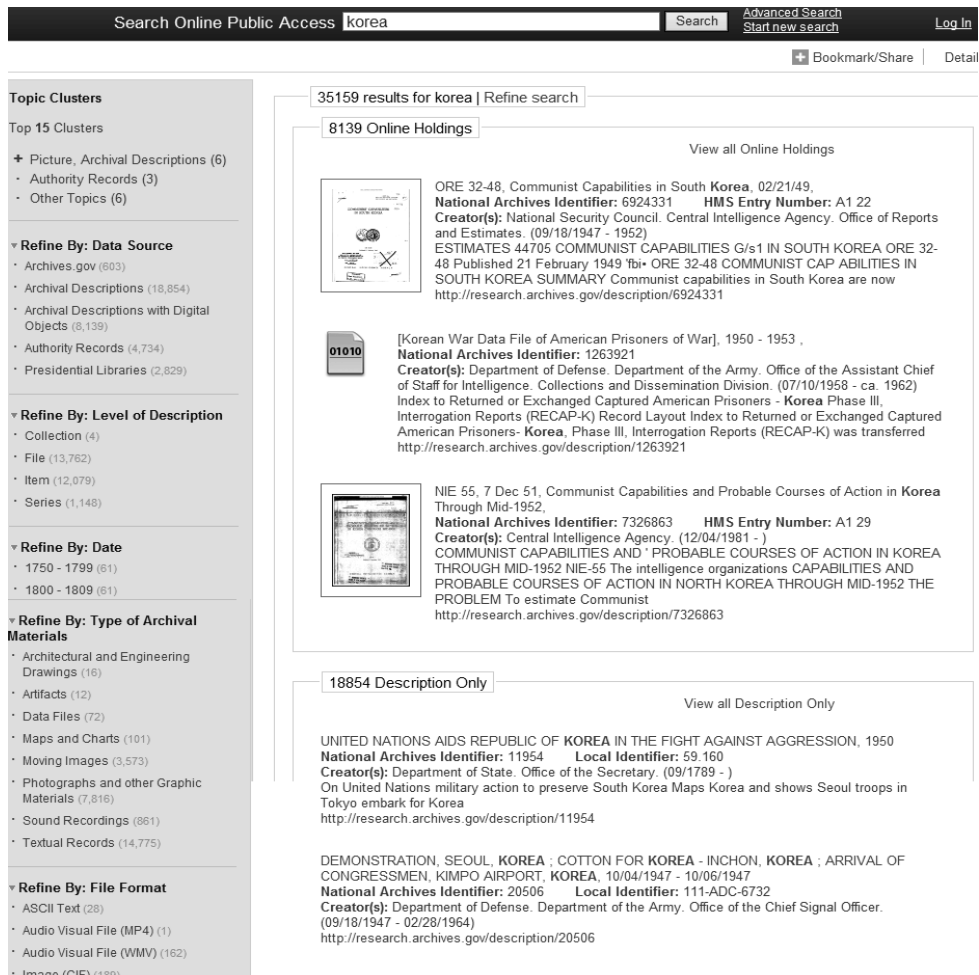
TNA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로는 'World through a lens', 'Education' 등이 있는데 World through a lens는 사진을 통해서 세계각지의 모습을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로서 NAA의 Snapshots of the collection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이용자가 참여하여 콘텐츠를

완성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ducation은 교육관련 콘텐츠로서 선생님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 3.2.3 NARA

NARA에서는 'OPA(Online Public Access)'라는 키워드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OPA는 기록의 기술 정보, 기록 목록, 전자파일, 디지털 개체 및 대통령기록관 등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

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OPA는 기본검색, 고급검색으로 나뉘며, 기본검색의 경우 특별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AND, OR 등을 이용한 키워드 조합을 통해 검색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 고급검색의 옵션은 1차적으로 고급검색, 선거레코드 검색, 아카이브 기술검색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세부적인 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아카이브기술검색의 세부옵션으로 아카이브 종류나 파일포맷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림 4〉 NARA에서 Korea로 검색한 결과(왼쪽 옵션은 화면 캡처 위해 일부 편집)

이 특징이다. OPA를 이용하여 기록을 검색할 경우 TNA와 마찬가지로 Refine 기능을 제공하여 검색결과 내에서 재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검색창 아래에 'Show Expansions' 기능을 두어 이용자가 원할 경우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여주어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NARA 검색도구에서는 기술계층별 검색기능은 따로 제공하지 않으나, 연방정부조직별 검색 기능에서 NARA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방정부조직과 관련된 기록을 의회, 연방 법원, 행정기관 등 연방정부조직 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한편 주제별검색은 주제유형별, 미디어 유형/파일포맷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제유형별 검색은 기록을 주제유형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기록을 제공하며, 미디어 유형/파일포맷별 검색은 미디어 유형이나 기록의 포맷에 따라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NARA에서는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이용 빈도가 높아 별도의 메뉴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Veterans' Service Records'와 'Teachers' Resources'다. Veterans' Service Records는 퇴역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군인기록의 역사적 연구보다는 당사자들의 연금, 포상 등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군인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NARA에서는 인사기록, 의료기록 등 온라인으로 다양한 관련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Teacher' Resources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서, 사진들을 모아놓은 DocsTeach,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eBooks 등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4.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NAA, TNA, NARA 각각의 온라인 검색도구에서 기본 및 고급검색, 기록 계층 브라우징, 주제별검색 및 기록정보콘텐츠 등을 살펴보면서 의견들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을 종합하여 전반적 기능 및 계층별 검색 측면, 검색 옵션 및 주제어 검색 측면, 검색결과 표시 관련,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관련의 4가지로 나누어 기술한다.

### 4.1 전반적 기능 및 계층별 검색

NAA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것은 직관적인 Recordsearch의 인터페이스였다. 복잡한 옵션을 한꺼번에 이용자들에게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모든 그룹이 공통적으로 선호하였다. 또 기본적으로 키워드검색을 단순하게 제시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다른 검색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하였다. 고급검색에서 기술계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도형으로 계층성을 표시하고, 적절한 수준의 기록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이용하기도 편리하다고 평가하였다. 고급검색에서 또한 생산기관, 기능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게 평가하였으며, 사진검색이 따로 있다는 것도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시리즈나 아이템과 같은 전문용어가 사용되는데, 일반 이용자가 이러한 전문용어를 알기 어려우므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NAA]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 계층별로 딱딱 나뉘어진 느낌이 기록의 계층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NAA] “카테고리로 딱 나뉘어져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찾아야하는지 파악하기가 쉬웠어요”

TNA는 먼저 Start here 라는 코너를 통해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이용을 편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다만 기술계층별 검색에서는 NAA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고 보았다. NAA가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반면, 영국 TNA는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전체적인 기술계층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반면 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태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TNA는 어느 페이지를 가더라도 화면 오른쪽에 ‘Send us feedback’ 탭을 두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이점도 이용자들이 좋게 평가하였다.

NARA는 주제를 부여하는 태그 기능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활용도 잘 되는 것 같아 검색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검색 결과 제시되는 정보들은 북마크/쉐어 기능을 이용하여 Gmail, Facebook, Evernote 등 300개 이상의 다양한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에서 대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NARA] “무려 300여개 이상의 사이트와의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NARA] “엄청나게 많은 북마크나 쉐어 기능을 제공하는데 [...] 제공되는 각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이 검색결과를 공유하고 북마크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 4.2 검색옵션 및 주제어 검색 평가 결과

NAA의 검색옵션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Exclude 기능을 제공하여 원하지 않는 옵션을 배제하고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호감을 나타내었다. 또 주제어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여 이를 통해 브라우징하도록 한 점도 편리하다고 여겼다. 일반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 중 한 가지가 사진인데, 사진만을 따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점도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조직과 기관을 통해 검색을 할 때 조직과 기관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아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NAA] “초보자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기록인데 이를 별도로 제공하는 NAA의 경우, 저처럼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TNA에서 제공하는 키워드검색은 관련된 주제어 제시 등 옵션들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검색결과를 통제하는데 편리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주제어 그룹을 하나의 검색 옵션으로 제공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주제어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여 이를 통해 브라우징

하는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키워드검색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크/언체크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제 가능하도록 한 점도 좋게 평가되었다.

[TNA] “특히 TNA의 경우에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옵션만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방식대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TNA] “내가 원하지 않는 옵션은 빼고, 원하면 넣는 체크/언체크 방식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NARA에서 제공하는 키워드검색은 TNA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용자들은 다양한 파일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반대로 옵션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나라기록 넷피와 같은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복잡한 구조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구조를 선호하는데 반해, 기록학 전공자 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아, 이용자 별로 다른 옵션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또 이용자들은 NARA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창 바로 아래에 ‘Show Expansions’ 버튼이 제시되고, 이를 클릭하면 입력된 용어와 관련하여 광의어, 협의어, 관련어 등이 제시되어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여 검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편리하게 생각하였다.

[NARA] “저 같은 경우 기록을 찾을 때 pdf로 된 파일을 좋아하는데, NARA 같은 경우에 pdf나 txt 파일 등과 같이 파일 포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주셔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TNA] [NARA] “많은 옵션을 제공해주셔서 이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NARA] “방금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이와 관련된 상의어, 하위어, 관련어 등이 제시되는 것에 무척 놀랐고 잘만 이용하면 엄청나게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NARA] “키워드와 관련된 어휘관계구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은 사실인데, 사람마다 이 기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반드시 제공은 하되 옵션으로 제공을 하여 원하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4.3 검색 결과 표시

NAA의 경우, 이용자들은 검색 결과에 제시된 여러 기록 정보에 대해 기록을 개별적으로 클릭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기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특히 디지털화 여부를 검색 결과에 표시해줌으로써 이용자가 쉽게 디지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진검

색이 따로 있어 편리하나 사진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를 최신 순으로 정렬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장 순으로 제공하고 정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TNA의 Discovery는 검색 결과 제시 방법에 있어, 고급검색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된다는 점에 호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Refine(리파인) 기능을 통해 처음에 제시된 검색 결과에서 조금씩 결과를 좁혀나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식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뒤에 살펴본 NARA의 리파인 기능과 비교해서 옵션 수가 적은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각 옵션을 체크/언체크 할 수 있게 제공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배제하고 원하는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검색 결과 제시에 있어 입력한 키워드에 대해 별도로 형광펜 줄긋듯이 따로 표시해준 것이 눈에도 잘 띄고,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여 좀 더 직관적으로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색 결과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록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여, 별도로 기록을 살펴보지 않아도 쉽게 기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평가를 하였다.

[TNA] “검색을 할 때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요, [검색결과에서] 키워드를 진하게 표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TNA]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검색의 범위를 좁혀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NARA의 OPA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결과를 기록 소장 기관 별이나 온라인

기록 여부 등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보았다. 또한 TNA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결과에서 리파인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는 방식은 여러 이용자들이 좋아하였다. 특히 TNA에 비해 많은 리파인 옵션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혔다는 점을 더 좋게 보았다. 또한 개별 기록 정보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편리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검색결과에서 많은 옵션을 제공하다보니 일반 이용자의 경우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하나의 화면에 모든 검색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TNA, NARA] “기록을 누르지 않아도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불편하게 별도로 클릭하지 않더라도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줘서 편리했습니다.”

#### 4.4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NAA에 대해서는, Family history, Education 등 특정 목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Snapshots of the collection'이라는 콘텐츠에서 부분적으로 Filckr 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용자와 함께 콘텐츠를 완성해나가도록 한 것도 높이 평가하였다.

[NAA] “온라인콘텐츠에서 이용자와 함께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NAA] “유저들이 만들어나가면서 자료도 공유해나가는 콘텐츠가 좋았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TNA에 대해서는 기록정보콘텐츠 중에서 특히 ‘World through a lens’의 경우, 단순한 콘텐츠의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 참여를 통한 콘텐츠 구축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큰 호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육 콘텐츠를 별도로 구축하여 학생과 교사 등 특정 목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기록의 활용성, 콘텐츠 이용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 NARA에 대해서는 Veterans’ Service Records, Teachers’ Resources 등 특정 목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TNA] “Education은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주어서 좋았어요.”

## 5. 온라인 검색도구 개선 및 발전 방향

앞에서 살펴본 국가기록원과 NAA, TNA, NARA 등의 온라인 검색도구를 살펴보고 국가기록원의 검색도구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이용자들이 논의한 검색도구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앞으로 온라인 검색도구가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할지 등에 대해 제시해 본다.

### 5.1 전반적 기능 및 계층별 검색

이용자들은 기록을 검색할 때 단순히 기록 한 건만을 원할 수도 있지만, 또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기록이 속한 기록 계층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기록들을 찾아보고자 할 수도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검색 기능을 통해서는 이용자들이 찾는 기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록의 계층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 NAA의 삼각형 그림으로 계층을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는 기록의 계층성을 이해하기 쉽고, 이용자는 비교적 간단하게 원하는 계층에서 기록을 검색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기술계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텍스트로 된 옵션으로 제공하여,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용어의 생소함, 인터페이스의 불친절함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도형 혹은 그래픽으로 단순화하여 이용자가 이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검색방법에 대한 정보를 첫 화면에 잘 보이게 배치하여 이용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은 2013년 말까지는 태그 기능을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자들이 태그를 부여하거나 태그를 이용하여 검색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터뷰 결과, 이용자들은 태그를 부여하고 또한 이용자들이 부여한 태그를 검색해서 기록을 찾는 방식에 큰 호감을 보였으므로, 태그 기능은 재정비하여 다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이용자가 검색 결과에서 관심있는 내용은 바로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TNA는 어느 페이지에 가더라도 화면에 'send us feedback' 탭을 보여주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자들이 검색도구의 기능이나 기록에 대해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5.2 검색 옵션 및 주제어 검색

검색도구에서 다양한 검색 옵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복잡하게 인식하기도 했으나, 다양한 옵션을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NAA의 Exclude 기능, TNA의 주제별 검색 옵션, NARA의 파일포맷별 옵션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다양한 검색 옵션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기능은 현재 부족하다. 검색 시 일부 옵션을 배제하는 기능이 없고, 주제별검색에서는 단순히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어, 상세검색의 다양한 옵션과 연계되지 않아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다양한 파일포맷이 포함되고 이용자들이 꼭 찾고자 하는 특정 포맷이 있을 터인데, 파일포맷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점도 어렵다. 또 특정 형태나 종류의 기록물은 제외(exclude)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이 선호한 기능 중에는 입력된 용어와 관련된 광의어, 협의어, 관련어 등을 제시해

주는 NARA의 'Show Expansions'가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이용자들은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된 어휘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검색결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별도의 옵션으로 주어 원하는 이용자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도 현재 이와 유사하게 관련용어 검색을 간략검색 옆에 옵션처럼 두고 있지만, NARA의 기능과는 다르게 단순히 관련용어검색으로 이동시켜주는 링크만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옵션으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링크 기능 이상으로, 시소러스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키워드와 관련된 상·하위 주제가 같이 제시되면 유용할 것이다.

또 한편, 이용자들은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거레코드를 이용하여, 조직과 기관의 명칭변경 상황, 연혁 등의 정보를 옵션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NARA의 사례와 같이, 정부 부서별로 기록의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달라지는 검색 방법도 같이 제시하면 유용할 것이다.

## 5.3 검색 결과 제시

이용자들이 검색결과 제시와 관련하여 가장 선호했던 내용은 입력한 키워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결과에서 입력된 키워드를 강조해 제시한 것과 풍부한 메타데이터 내용의 제시였다. 입력한 키워드를 형광색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해당 기록에 키워드가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기록원에서 기본검색을 이용했을 때는 입력한 키워드와 동일한 것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강조했으나 고급검색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때는 별도의 표시 없이 단편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현재보다 좀 더 많은 메타데이터를 검색결과에 표시하여, 기록물 건이나 철의 제목뿐만 아니라 기록물 건이나 철단위의 메타데이터나 기술요소들의 일부를 간략히 보여주도록 해서, 별도로 기록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기록인지 아닌지 파악이 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의 의견 중에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었을 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TNA와 NARA에서 제공하는 리파인 기능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호감을 표현하였는데, 이 기능은 다양한 옵션을 통해 검색결과를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국가기록원에서는 '결과 내 재검색'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이는 단순히 키워드를 입력하여 결과를 정제하는 것으로 리파인 기능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다. 리파인 기능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기능을 검색결과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TNA는 사진 검색 결과 사진에 제시된 위치를 단순히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이용해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 인터랙티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NARA는 사진의 경우 확대/축소가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데, 이는 사진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옵션이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4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기록정보콘텐츠의 경우 국가기록원 역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 사례와 비교해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먼저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도 주제어를 부여하고, 주제별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NAA나 TNA의 경우 이용자와 함께 완성해나가는 콘텐츠를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었다. 국가기록원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용자 세분화 콘텐츠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2014년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콘텐츠를 이용자 그룹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이는 최소한의 세분화에 불과하고 그 구분이 너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교육콘텐츠의 경우 학생·교사로 나누고 있는데, 해당 콘텐츠가 학생의 학업을 도와주는 콘텐츠인지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조차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학생과 교사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 이용자그룹 중 하나로만 구분하고 있다.

또 TNA는 교육 현장에서 수업에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콘텐츠화 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콘텐츠가 많이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교사가 검색도구를 검색해서 수업자료를 찾을 필요 없이 교과과정과 연계되는 기록을 활용하여 콘텐츠가 개발되어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고도화된 서비스가 될 것이다.

## 6. 결론 및 제언

검색도구는 이용자들에게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터넷 환경이 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기록관들도 웹으로 온라인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도구의 설계와 개발방향이 이용자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 기록원도 검색도구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편의성 및 이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호주의 NAA, 영국의 TNA, 미국 NARA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도구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다.

또 이들 기관의 온라인 검색도구 분석을 위해, 국가기록원 서포터즈 나라기록넷띠, 기록학 전공자, 역사학 전공자 등 세 그룹의 이용자에게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나온 논의 사항들과 의견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온라인 검색도구가 가지는 장점 및 단점을 이용자 입장에서 파악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기록원의 온라인 검색도구의 개선 방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층정보를 제공하고, 태그 등 이용자 참여와 공유 기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검색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배제하는 기능 및 주제어 확장 검색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검색 결과 제시에 있어 메타데이터 정보가 결과에 쉽게 파악되도록 제시되어야 함과 다양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기록정보콘텐츠는 검색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 구성 및 이용자 세분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온라인 검색도구 현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온라인 검색도구의 시스템적 설계 방안이나 요건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맞는 각각의 구체적인 기술적 설계, 구조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07). 2007년 국가기록원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검색일자: 2014. 1. 30.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11000-200800015](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311000-200800015)
- 권창호 (2007). 토픽맵 기반의 기록물검색시스템 구축.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249-271.
- 설문원 (2010).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1), 3-43.
- 심정보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1-256.
- 안수현 (2003). 기록물 검색도구를 위한 출처정보 조직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유시내 (2007). 기록 검색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폭소노미 도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이해영 (2013. 11. 21). 전자기록과 온라인 검색도구의 발전방향. 기록경영포럼 발표집, 코엑스, 서울.
- 이해영, 최영실, 이효원, 임지민, 강재희, 이윤령, ... 허덕행 (2013). 대통령 주제분류체계 고도화 사업. 성남: 대통령기록관.
- 채서일 (2008). 마케팅 조사론. 제3판. 서울: 비엔엠북스.
- 하은미, 이수상 (2007). 대학기록물의 온라인 탐색도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139-164.
- Altman, B., & Nemmers, J. R. (2001). The usability of on-line archival resources: the Polaris Project finding aid. *American archivist*, 64(1), 121-131.
- Chapman, J. C. (2010). Observing Users: An Empirical Analysis of User Interaction with Online Finding Aid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8(1), 4-30.
- Coats, L. R. (2004). Users of EAD finding aids: who are they and are they satisfied?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2(3), 25-39.
- Cox, R. J. (2008). Revisiting the archival finding aid.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5(4), 5-32.
- Daines III, J. G. & Nimer, C. L. (2011). Re-Imagining Archival Display: Creating User-Friendly Finding Aid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9(1), 4-31.
- Duff, W. M. & Stoyanova, P. (1998). Transforming the Crazy Quilt: Archival Displays from a User's Point of View. *Archivaria*, 1(45), 44-79.
- Jackson, T. M. (2012). I Want To See It: A Usability Study of Digital Content Integrated into Finding Aids. *Journal for the Society of North Carolina Archivists*, 9(2), 20-77.

- Krause, M. G. & Yakel, E. (2007). Interaction in virtual archives: the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 next generation finding aid. *American Archivist*, 70(2), 282-314.
- Light, M. & Hyry, T. (2002).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 *American Archivist*, 65(2), 216-230.
- Morgan, David L. (1998). *Planning Focus Groups*, SAGE Publications.
- Nimer, C. & Daines III, J. G. (2008). What Do You Mean It Doesn't Make Sense? Redesigning Finding Aids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6(4), 216-232.
- Prom, C. J. (2002). The EAD cookbook: A survey and usability study. *American Archivist*, 65, 257-275.
- Prom, C. J. (2004). User Interactions with Electronic Finding Aids in a Controlled Setting. *American Archivist*, 67(2), 234-268.
- Walters, E. (2011). Usability Studies of Online Finding Aids: A Content Analysis of the Literature, 1998-2008. *Journal for the Society of North Carolina Archivists*, 8(2).
- Yakel, E. (2004).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Are finding aids boundary spanners or barriers for user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2(1-2), 63-77.
- Yakel, E., Shaw, S., & Reynolds, P. (2007). Creating the next generation of archival finding aids. *D-lib Magazine*, 13(5).
- Zhou, X. (2007). Examining search functions of EAD finding aids Web site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4(3-4), 99-118.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검색일자: 2014. 1. 20.

<http://www.archives.go.kr/next/theme/themeView01.do>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란? 검색일자: 2014. 1. 20.

<http://www.archives.go.kr/next/theme/contentsOutline.do>

국가기록원. 기술계층별 기본검색. 검색일자: 2014. 1. 20.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viewDescClassMain.do>

국가기록원. 주제별검색. 검색일자: 2014. 1. 20.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formSubjectSearch.do>

Brigham Young University. Retrieved 2013.11.30, from <http://home.byu.edu/home>

NAA. Retrieved 2013. 11. 30, from <http://www.naa.gov.au>

NARA. Retrieved 2013. 11. 30, from <http://www.archives.gov>

TNA. Retrieved 2013. 11. 30, from <http://www.nationalarchives.gov.uk>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S. H. (2003). Organizing Strategies of Provenance Information for Archival Finding Ai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Seoul, Korea.
- Chae, S. I. (2008). Marketing Research, 3rd ed. Seoul: B&M Books.
- Ha, E. M. & Lee, S. S. (2007). A Study on the Online Finding Aids of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139-164.
- Kwon, C. W. (2007). Construction of Record Retrieval System based on Topic Map.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Seoul, Korea.
- Seol, M. W. (2008). A Study of Strategic Planning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249-271.
- Seol, M. W. (2010). A Study on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Archival Finding Ai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1), 3-43.
- Shim, S. B. (2007).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201-256.
- You, S. N. (2007).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olksonomy for the Improvement of Archival Retrieval Serv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Seoul, Korea.